

북한을 위한 기도

2026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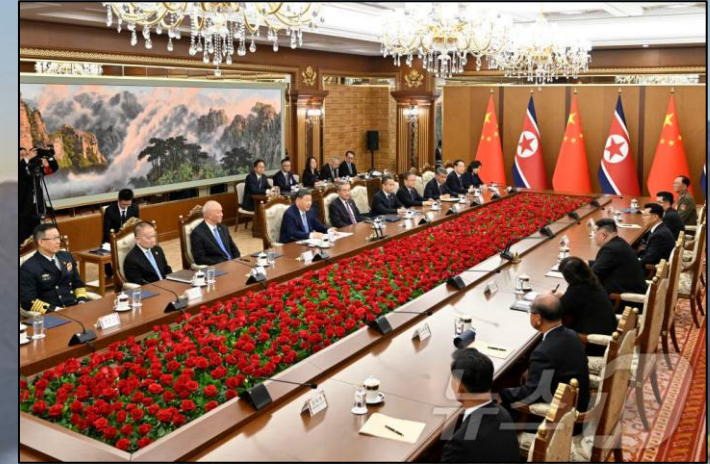


1. 북중 관계 변화에 따른 북한 선교 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6월 8~9일 북중 정상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외교·법집행·군대 등 분야의 교류 강화, 발전 전략 연계 및 실질 협력 확대, 국경 통상구 전면 재개통 및 인적 교류 확대 등을 합의하였습니다.

북중간 협력 강화와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해 선교의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하는 가운데, 법 집행(치안) 분야 등의 교류 강화 등이 탈북자 사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재기됩니다.

양국 관계 개선이 북한 선교의 문이 넓혀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현장의 선교사와 사역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안전하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해외 북한 선교 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요 해외 북한 선교 현장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종교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중 탈북 여성들에 대한 디지털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성격을 가지고 북중 국경을 방문하는 여행팀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러시아는 탈북자 사역을 하던 백광순 선교사님이 2년째 억류 중이시고, 올 1월에 박태연 선교사님이 체포되시면서 선교 현장의 긴장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일선의 선교사와 현장 사역자들이 여러 난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특히 갇힌 선교사님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3. 해외 북한 선교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기도합니다.

6년간 중단되었던 베이징-평양 여객열차 운행이 3월 12일부터 재개되었습니다. 이번 북중정상회담에서 국경통상구 전면 개방 및 인적 교류 확대가 합의되었고, 신압록강대교에서 북중 간 버스 시운전을 진행하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중국발 북한 관광도 곧 재개될 전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로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의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북·중·러 협력이 더 많은 북한 출신 영혼들과의 접촉점 확대로 이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이와 함께 해외 북한 노동자들이 바깥세상에 대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더 나아가 복음을 접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4.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북한이 헌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헌법에는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하는 영토조항이 신설되고 통일 관련 조항이 삭제되는 등 '두 국가' 노선이 반영되었습니다. 다행히 한국을 적대국으로 선언하는 내용은 없었지만, 국무위원장에게 독점적 핵무력 지휘권을 명기하고 명목상의 견제 사항마저 폐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헌법 개정 내용을 살펴볼 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북핵 문제가 평화적 해결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북측적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5.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갇힌 성도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 한총련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시던 장백의 장문석 집사님께서 12년 만에 풀려나셔서 중국으로 귀환하신 소식은 우리에게 옥중의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여전히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님 등이 억류 중이고,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진 지하 교회 성도와 강제 북송 탈북 여성 신자가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 속히 중단되도록 기도합시다. 수용소에 갇힌 성도와 억류된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연좌제로 인해 처벌 및 추방을 당한 지하 교회 성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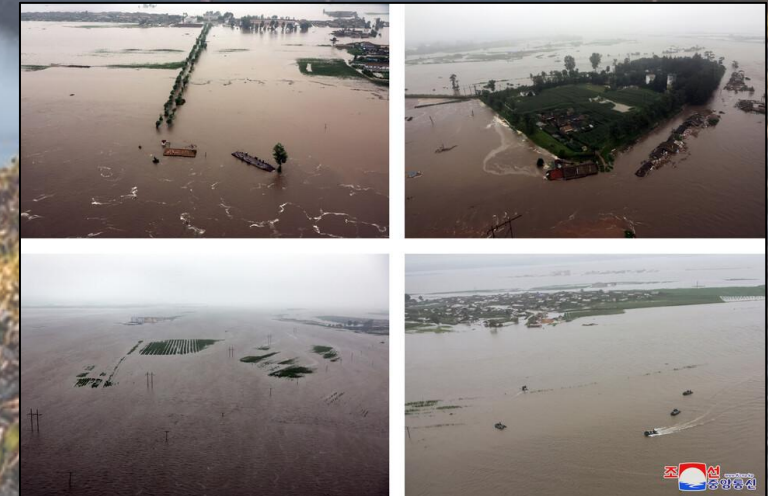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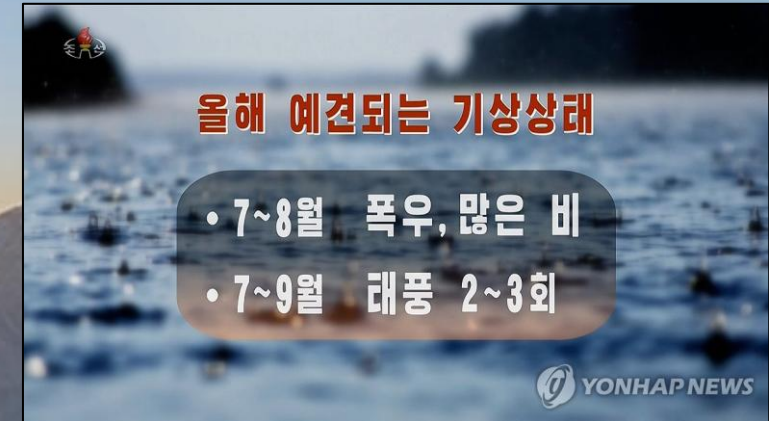


12년만에 귀환한 장문석 집사

6. 올 여름 북한에 수해 피해가 없도록 기도합니다.

북한은 여름마다 수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2016년에는 태풍 '라이언록'으로 인해 두만강 유역의 여러 지역(회령, 무산, 경원, 온성 등)에서 십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수백여명이 희생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압록강 유역에 대홍수가 발생하여 자강도와 의주, 신의주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고, 수천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여러 태풍과 장기간의 장마전선의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열악한 수해 방지 인프라가 확충되고 더 이상 수해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를 겪지 않도록,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의 재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7.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후계자로 내정되어 관련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한의 4대 세습이 기정사실화되고 핵무력까지 다음 세대로 전수하려는 모습은 여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40대 초반에 불과한 김정은이 10대 초반의 어린 딸에게 벌써부터 후계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의 이면에는 깊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진정으로 살길은 권력 세습이 아닌 회개와 변화에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지도자가 등장하든, 북한이 권력 세습에만 집착하기보다 회개를 통한 근본적인 변화를 선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길에서 온전히 돌이키도록 기도합니다.



8. 현장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근래에 한국행을 시도하다가 붙잡힌 북한 여성들의 소식이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북중 관계가 밀접해지는 가운데 붙잡힌 여성들이 북송될 가능성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선교사나 사역자들이 중국으로의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추방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 여성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여성들을 위협하는 모든 악한 계획이 무산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선교사와 현장 사역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를 기울이며 안전하게 사역을 이어가고, 이를 위한 창의적인 사역 방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기도문

새번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